

필리핀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학번	
파견국가	필리핀	파견도시	수빅
파견대학	필리핀대학마닐라	기간	2017.12.16.(토) ~ 2018.1.12(금)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필리핀 마닐라 대학에 다녀왔습니다. 시설은 만족했습니다. 따뜻한 물도 잘나오고, 음식도 한식부터 필리핀 음식까지 다양하게 나왔으며 전반적으로 모두 맛있었습니다. 건물 마당엔 수영장이 있어 자유롭게 수영할수 있었고, 여러 가지 운동 기구들과 장비들이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가끔씩 벌레가 나타나는것만 빼면 아주 만족했습니다.
수업	수업은 하루 8시간 일대일 수업 4시간, 그룹수업 4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8개의 수업이 있으며 각 수업마다 교재가 다릅니다. 먼저 일대일 수업에서는 문법,단어를 비롯해 영어의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받습니다. 모든게 영어로 이루어지지만 맨처음에 있었던 레벨테스트로 인해 내 수준에 맞는 학습을 받을수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그룹수업에서는 4명이서 조를 이뤄 주제에대해 자기의견들을 표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과정에서 서로의 다른 의견들을 수용하고, 내 주장을 이야기하면서 영어리스닝과 스피킹 실력을 늘릴 수 있었습니다. 또 수업중에는 토익 스피킹 수업도 있었는데, 토익스피킹의 과정, 절차 등을 배우고, 하루 2시간의 연습을 통해 실력을 향상 시켰습니다. 마지막에 시험 또한 보면서 나의 향상된 수준을 직접 확인할수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은 각자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였지만 모두 저의 영어실력을 늘리고자 하는 생각은 차이점이 없었습니다.

Activity	수업 외에 별도로 진행된 Activity에 대해 서술해 주세요. - Activity 종류, 내용, 준비물, 추가비용 등 activity는 총 3가지였습니다. 요트투어, 안바야코스, 바닷가. 모두 수영 위주 활동이었습니다. 물론 개인의 선택에 맞춰 동물원이나 수족관등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요트 투어같은 경우는 수영복만 있으면 바다에서 수영할 수 있고, 요트 뱃머리에서 치킨과 맥주를 하며 풍경을 감상했습니다. 바닷가에서 수영하면서 고글을 빌려 바닷속 물고기들도 감상했습니다. 입장료는 500페소이며 고글과 구명조끼는 200페소에 빌릴수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안바야 코스는 수영장과 바다가 함께있는 별장이었습니다. 매우 아름다웠으며 샤워 시설 또한 훌륭했습니다. 다만 필리핀 다른곳에 비해 음식값이 750 페소 정도로 비쌌습니다. 꼭 수영복을 가져가야 합니다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현지 기후 및 유의점 현지 기후는 크게 두가지로 구분됩니다. 맑은 날과 비오는날. 우리나라의 여름이 1년내내 지속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만 밤이나 새벽 공기가 쌀쌀할때도 있으니 겉옷정도는 챙겨가야 합니다.
안전	현지 안전 상황 총기 허가 국가라 해서 가기전에 매우 불안해 했지만, 쓸데없는 걱정거리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총기는 생활하는내내 한번도 본적없고, 가게나 식당등 항상 무장한 경찰들이 지키고있었습니다. 들어갈 때 소지품 검사를 하는등 보안이 훌륭했습니다
숙소	학교기숙사(☐) 홈스테이(☐) 외부 숙소(☐) 기타(☐) 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 숙소는 3인 1실로 사용하며, 아침,점심,저녁 규칙적인 시간대에 식사를 제

	공합니다. 점호는 평일 10시, 주말 12시이고 점호가 끝난뒤에도 건물안에서 자유롭게 이동할수있어서, 공부하거나 친구들과 만날수있어서 만족했습니다.
식사	학교식당(o) 홈스테이 () 외부식당(o) 기타() 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 아침 점심은 항상 학교식당을 이용했습니다. 식당에서 한식, 필리핀 음식 등 여러 가지 메뉴들이 준비되어있고, 모두 맛있었습니다. 저녁은 외부에서 먹곤했는데, 현지 물이 한국물과 달라 배앓이를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한주정도 지나면 모두 적응했습니다. 외부에는 한국에서 흔히볼 수 있는 맥도날드나, 버거킹등도 있고 필리핀에서만 볼 수 있는 여러 식당들도 많았습니다. 모두 맛있었습니다.
교통	통학방법, 시내교통 관련 주로 FB라는 현지 교통수단을 타며 시티와 학교를 통학했고, 가격은 한국 돈으로 300원 꼴로 저렴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늦어지면 택시를 타야했는데 택시또한 2500원 정도로 매우 저렴했습니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유학허가증(SSP), 여행자보험	639,000	출국 전 사전 납부
사비	400,000	
합계	1,039,000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해 주세요. 1. 쌀쌀한 날들이 많으니 겉옷 한두벌정도는 준비 2. 수영복 필수

3. 비누나 샴푸등은 현지에서 사고 돌아갈 때 버리는게 가격도 저렴하고 짐칸을 아낄 수 있습니다.

4.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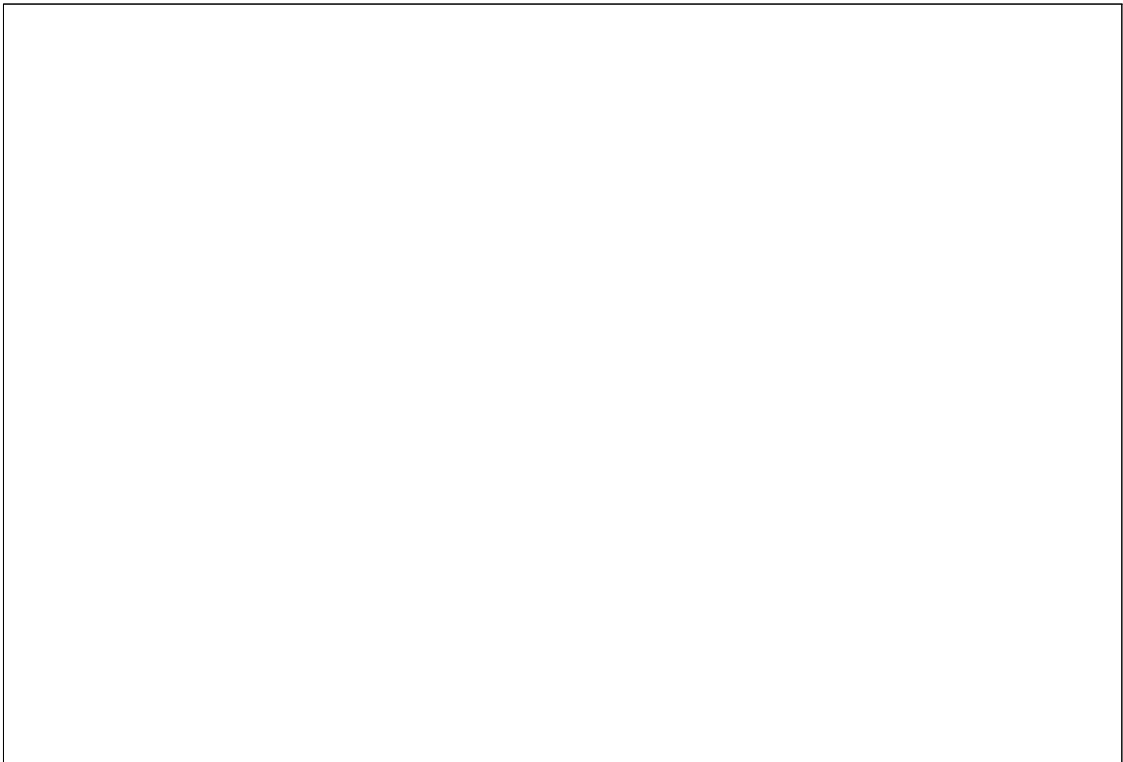
정말 잊지 못할 한달이었습니다. 영어 공부 목적으로 시작한 어학연수였지만, 영어 공부 뿐만 아니라 다양한 값진 경험들을 배웠습니다. 먼저 영어를 배웠습니다. 원래 알고있던 지식에 선생님들의 수업을 통해 더욱 견고하게 다듬었고, 선생님들의 각자 다른 수업방식 덕분에 다양한 방법으로 영어를 배울수 있었습니다.

또 필리핀 문화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activity를 통해 필리핀 곳곳을 돌아다니며 그들의 행동,문화,언어 등을 몸소 체험했고, 수요일 오후 시간에 활동들을 하면서 필리핀 음식,게임 등을 배웠습니다.

총기허용국가라 사전에 우려가 많았지만, 겪어보니 전혀 문제될 것 없었고, 오히려 무장한 경찰들이 많아 더욱 안전하였습니다.

아쉬운점은 4주간의 기간이 너무 짧다는 것입니다. 토익스피킹 수업만 보더라도, 아주 많은 분량의 수업내용을 4주만에 압축시키다보니 상세한 내용이나 오랜 훈련 같은것들은 스킵하고 지나갈 때도 있었습니다. 또 야외활동은 주말에만 가능한데 필리핀 여기저기 갈 수 있는 많은 명소중에 제한적으로 골라 가야된다는점, 현지인들,선생님들, 학생서로서로가 친해지며 정이 들어갈때쯤 헤어진다는 점 등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4주는 짧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 의견으로 6주의 활동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필리핀의 값진 경험으로 인해 저는 앞으로도 영어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할것이고, 여기서 배운 토익스피킹 기초를 토대로 열심히 공부하여 토익스피킹 자격증을 따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할것입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졸업식날 장기자랑	수업



요트투어



MMC제작 경진대회 수상



바베큐파티



트리탑 활동